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지원률 138%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원서접수 마감 결과… 2700명 모집 3726명 지원
2024~2025학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상승… 글로벌특성화고 육성 등 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 결과, 2,700명 모집에 3,726명이 지원해 지원율을 138.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학년도 106.2%, 2025학년도 119.9%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일부 학교의 지원율은 200%를 넘는 등 도내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직업계고 지원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북글로벌컬특성화고 육성

정책 강화 △협약형특성화고 선정 △지역 신산업 맞춤형 학과개편 △원광대학교 선취업 계약학과 신설(2026학년도 첫 모집) △전북직업교육박람회·직업계고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학생·학부모 인식변화 등이 꼽히고 있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글로벌컬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수소에너지·자동차·보건·제과제빵·펫·관광 분야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자동차·AI팜 등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진로 선택 폭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전략산업 기반 교육과정을 담은 글로벌컬특성화고 육성 정책이 직업계고 지원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산업체와 협업체 운영 중인 협약형 특성화고도 직업계고 선호도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업·기관과의 정식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 실무교육, 산업체 맞춤형 교육, 취업 연

계 지원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를 감안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쌓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원광대 선취업 계약학과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과 학위 취득이 동시에 가능해 지는 등 직업계고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올해 직업계고 지원자 수 증가와 경쟁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대학·기업·지자체와 협력해 점북형 미래 직업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직업계고가 학생들의 확실한 선택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천재교과서와 협약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달 28일 (주)천재교과서와 상호 간 교육 협력 및 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천재교과서 박금옥 본부장은 “전주교육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인 만큼,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보건교사 전문성 개발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나이팅게일홀에서 보건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보건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내에서 내·외과적 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 보건교사의 의약품 안전 관리 및 다빈도 증상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서소영 약사의 '학생 안전을 위한 의약품 사용 및 관리 가이드' △한얼고등학교 강지은 보건교사의 '보건실 운영과 다빈도 증상 관리 전략' 등이 다.

연수에 참석한 한 보건교사는 “의약품 관리와 다빈도 증상 대응에 대해 정리된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실제 보건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학생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에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를 위탁 운영중이다. 센터에서는 △학생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보건교육 자료 개발 △체형형 건강 증진 사업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 △건강 취약 학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진수당 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정책 대응을 위해 5개 기관 및 8개 기업과 함께 '거점국립대 육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산학연 협력벨트’ 통해 거점국립대 육성

전북대, 정부 거점국립대 육성정책 대응 위해 5개 기관·8개 기업과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달 28일 진수당 3층 대회의실에서 5개 기관 및 8개 기업과 함께 '거점국립대 육성 업무협약(MOU)'을 체결, 미래 산업과 연계한 연구·교육·산업 생태계 조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지역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지역 대표 혁신기관과 제조혁신 피지컬AI협회, 나인이즈, NC AI, 스파어AX, 인륜, 플리토, 이노넵, DH오

토리드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 및 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 및 거점국립대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분야 공동연구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훈련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AI 기반 미래 핵심기술 공동 R&D를 추진하고, 시험·분석 장비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역 기반 취·창업 생태계 구축,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등 다층적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대는 이번 협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 맞물려 향후 특색과 연구대학으로의 전환과 학부교육 혁신, RISE를 통한 지역대학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단순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축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기업·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교육,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접근성·서비스 강화… 전북대 보건진료소 확장 이전

후생관서 학생타운 3층으로

진료실 등 16개 공간으로 구성

디지털 X선 촬영장치 등 교체

의료 서비스 확대 제공키로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소장 김중석 의대 교수)가 기존 후생관에서 학생타운 3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이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진료 공간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학생 등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김중석 보건진료소장, 진료명예교수,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보건진료소의 이전 개소를 축하했다.

전북대, 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국제워크숍 성료

22개국 연구자 등 참석

전북대학교 지능형로봇연구소(소장 김형석)가 지난달 27~28일 양일 간 공대 8호관 203호에서 AI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중국, 독일, 우루과이 등 22개국 연구자와 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AI 기술의 농업 적용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부 분야별 발제가



지난달 28일 전북대학교 학생타운 3층에서 열린 보건진료소 이전 개소식.

교내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총 5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새 보건진료소는 총 454.1㎡ 규모로 일반진료실과 구강진료실, 투약실, 처치실, 검사실, 방사선실, 체성분 검사실, 안정실 등 16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이어지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김형석 지능형로봇연구소장은 “이번 워크숍은 AI 기술을 논의하는 학술행사를 넘어, 실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연대의 장이었다”며 “전북대는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해 농업·식량·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스마트농업 플랫폼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교총 “교사도 민주사회의 구성원 교육의 민주성·자율성 강화하는 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달 28일 '교원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교원이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정치 참여·후원 행위가 제한돼 온 현실은 헌법의 보편적 권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교육의 미래 또한 침묵하게 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총은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폐지 및 휴직·복직 허용 △정책·교육감 선거 등 공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 자유 보장 △합법적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참여 보장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의 단계적 완화 및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직무 내 자율 통제장치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 기초”라면서, 책임 있는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되, 교원의 합법적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학력신장 정책 개선 토대 마련

전북교육청, '2025 학력신장 정책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전주 치명자산산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 학력신장 정책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학력신장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학력신장 정책을 양적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경험 질·만족도·핵심역량 향상 등과 같은 질적 성과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북형 학력신장 모델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에서 맞춤형 학력까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성과 공유 시간에는 각 기관이 운영한 특색 있는 학력신장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중등 맞춤형 학력신장 사업 성과(중등교육과) △초등 학력신장 정책 현황과 과제(유초등특수교육과) △이천 10분 독서 운영 성과(문예체건강과) △수학 문제해결반,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영어 기초·확



장 프로그램 운영 성과(창의인재교육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운영 성과(민주시민교육과) △IB 기반 수업·평가 설계 역량 강화 사례(미래교육과) 등이다. 전주·김제·진안교육지원청은 지역 기반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발표를 통해 협력 모델 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인 토의에서는 학력신장을 주제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학력향상 지원 방안, 지역 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 확충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부인 발표에서 도출된 의견은 도교육청 학력신장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2026년 정책 설계에 반영,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학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내실화 다지다

전주대 RISE사업단, 영상콘텐츠·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은 최근, '2025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영상콘텐츠&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 참여 경험을 되돌아보며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2025학년도 하계까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현장실습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경험담, 기업에서의 활동 내용 및 적용 스토리 등 다양한 주제적 작품을 응모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상콘텐츠 부문 3명, 수기 부문 11명 등 총 14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영상콘텐츠 부문 대상은 한식 조리학과 서주영 학생이 수상했다. 서주영 학생은 (주)올품에서 영업기획팀 실습생으로 근무하며 공장 실습을 통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이해하고, 현장 중심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한 경험을 영상에 담았다. 최우수상은 김이현(한식조리학과), 우수상은 하지연(관광경영학과)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이현 학생은 대한항공 씨앤티 현장실습에서 가내식 제조 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품질 유지 과정을 배우고,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른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수기 부문에서는 경영학과 박은지 학생이 '이론에서 현장으로, 나의 첫 실무 성장기'라는 제목의 수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외식산업조리학과 박진우 학생이 우수상을, 9명의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